

구문으로서의 把字句

조경환*

<목 차>

1. 서론
2. 동사와 구문간의 관계
3. 把字句의 파생과정
 - 3.1 甲류와 乙류/丙류 把字句
 - 3.2 遭遇와 致使 把字句
4. 결론

1. 서론

비록 동사와 논항이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이들이 결코 문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아래 문장의 경우에는 동사와 논항 등의 구성요소는 같지만, 엄연히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 (1) a.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벌들이 정원에 모여들었다.
- b. The garden is swarming with bees.
정원이 벌들로 가득 찼다.

(Goldberg 1994/2004:21)

www.kci.go.kr

(1a)는 정원에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반면, (1b)는 정원 전체에 별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 宝玉起累了那匹馬。

① 보옥은 말을 타서 그 말이 지치게 했다.

② 보옥이 그 말을 타서 보옥이 지쳐버렸다.

(3) 宝玉把那匹馬起累了。

보옥은 말을 타서 그 말이 지치게 했다.

위의 예 (2)와 같은 문장이 두 가지 해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구성성분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3)과 같은 把字句에서는 이러한 중의적인 해석은 사라지고, 단지 예 (2)의 첫 번째 해석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把字句에서는 예 (2)의 중의성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것이 단순히 동사와 논항(그리고 ‘把’자)의 문제가 아닌 把字句라는 구문 자체의 문제임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구문은 언어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Goldberg 1995/2004:24).¹⁾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동사와 구문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把字句의 파생과정을 구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사와 구문간의 관계

먼저 동사와 구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본 장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이동’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왜냐하면 ‘이동’은 우리의 지각적 조직과 언어의 사용을 통한 현실(reality)에 대한 개념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1) ‘구문(construction)’의 정의와 범주에 관하여 Goldberg(1995)와 Langacker(2009)의 몇몇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둘 다 어휘부-문법 연속체와 용법 토대적 정립이라는 기본 입장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당하며 추상적 경험에 대해 응집적이며 일관된 패턴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Radden 1996:423), 把字句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張旺熹 2001, 조경환 2008).

Goldberg(1995)와 Langacker(2009)는 ‘send’·‘kick’·‘sneeze’로써 이 문제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a. George sent Lily the tickets.
조지는 릴리에게 티켓을 보냈다.
b. George sent the tickets to Lily.
조지는 릴리에게 티켓을 보냈다.
- (5) a. Pat kicked the wall.
팻이 벽을 찼다.
b. Pat kicked the football into the stadium.
팻이 축구공을 경기장 안으로 찼다.
- (6) a. Lily sneezed.
릴리가 재채기 했다.
b. Lily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릴리가 재채기를 해서 냅킨을 테이블에서 떨어지게 했다.

(Langacker 2009:251-255)

Langacker(2009)에 따르면, 위의 세 동사 간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예 (4)의 ‘send’는 동사 자체가 이동 의미를 포함하며, ‘Lily’가 간접 빈어로 나타나는 전치사구로 나타나는지에 관계없이 이는 구문에서 고착화²⁾ 되었다.

한편 ‘kick’이라는 타동사는 예 (5a)와 같이 원래는 동사 자체에 이동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지만, 예 (5b)와 같은 이동구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이동의미와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반면 자동사이면서 이동의미가 없는 동사인 ‘sneeze’는 예 (6b)와 같은 이동

2) ‘고착화(entrenchment)’란 언어단위가 개별 언어 사용자의 마음속에서 인지적 패턴이나 상례로 확립되는 현상을 가리킨다.(Evans 2007/2010:98)

의미가 있는 타동 구문에 쓰였는데, 이러한 용법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혁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send’·‘kick’과 ‘sneeze’와 이동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send’, ‘kick’, ‘sneeze’의 관계



이렇게 동사 자체에는 없는 의미가 구문 안에서 생기는 현상은 사실 “구문 자체가 문장 안의 단어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관점(Goldberg 1995/2004:19)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국 이는 그것이 얼마나 실제 발화에서 관습적이며 고착화되었는지의 문제일 따름이다(Langacker 2009: 251).

사실 동사의 처치성만으로는 把字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7) a. *我把那個女人看了。

b. 我把你的書看了。(Teng 1977:109)

나는 너의 소설을 다 봤다.(내용을 알게 되었다).

동사 ‘看’은 처치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把字句에서는 쓰일 수 없다. 즉 (7a)에서 나는 그 여인이 누군인지를 알고 있으나, 그 여인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7a)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7b)와 같은 把字句에서는 정문이 되는데, (7b)에서 ‘你的書’는 생소한 것으로부터 친숙한 것으로의 상태 변화를 겪었으므로, 즉 주어인 ‘我’에 의해 일정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문이 된 셈이다.⁴⁾ 이렇게 본다면 把字句의 경우 단순히 동사의 처치성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논항과 기타성분 등도 고려할

3) Goldberg(1995/2004:103)는 이를 ‘의미역 수의 불일치’로 파악하였다. 즉 동사 ‘sneeze’는 하나의 윤곽화된 참여자 ‘sneezer’만을 가진 반면, (6b)와 같은 이동구문에서는 ‘cause, goal, theme’이라는 세 개의 논항역을 가지므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4) 다음 장에서도 살펴볼겠지만 이러한 상태 변화는 把-NP의 ‘이동(位移)’으로 把字句에 반영된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장안의 구성요소들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구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8) a. 他倒了一杯酒。(他斟了一杯酒)

한 잔의 술을 따르다.

b. 他把一杯酒倒了。(他把一杯酒倒掉了)

술 한 잔을 었질러버렸다。(梁東漢 1959:106)

예문 (8)에서 괄호 안의 문장은 앞 문장의 함의이다. 설령 '把'자를 의미가 있는 문법표지라고 가정하더라도 (8)의 두 문장이 다른 함의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힘들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성분이 아닌 전체 즉 구문으로서의 把字句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구문 자체가 의미가 풍부하다”라고 주장한 Golderg(1995)와 Langacker(2009)의 기본입장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구문 층위에서 把字句의 파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把字句의 파생과정

3.1 甲류와 乙류/丙류 把字句⁶⁾

우리는 把字句를 논의하기에 앞서 把字句의 원형범주를 무엇으로 삼는가라

5) 즉 '把'자가 주어의 영향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가정하더라도 '倒'가 把字句에서는 왜 '따르다'가 아닌 '었질러다'로 해석되는지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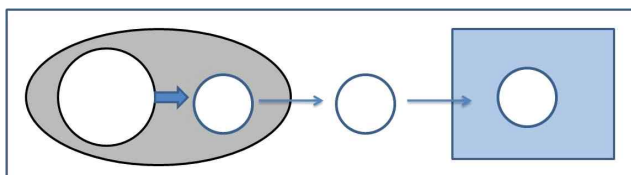
6) 把字句의 변천과정에 근거하여 把字句를 甲류와 乙류, 丙류로 나누는 梅祖麟(1990)의 분류는 가장 통용되는 把字句 분류법이다. 한편 吳福祥(2003)의 梅祖麟(1990)의 그것과 약간 다른데 梅祖麟(1990)의 甲류는 吳福祥(2003)의 廣義 處置式에 해당되며, 乙류와 丙류는 狹義 處置式에 해당된다. 명칭에 상관없이 把字句의 원형은 給與류·放置류·當作류 把字句(甲류·廣義 處置式)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동보구조가 쓰이는 乙류를 把字句의 원형범주로 간주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첫째, 乙류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의 把字句이며, 둘째, 역사적으로는 동사와 결과보어가 융합됨에 따라 빈어가 전치되었다는 빈어 전치설에 근거한 것이다(石毓智 2006).

그러나 把字句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됨에 따라 把字句는 연동문으로부터 발전하였으며, 특히 給與·放置류 동사가 쓰인 把字句, 소위 甲류라 불리는 류를 원형으로 보는 吳福祥(2003), 蔣紹愚(2008) 등의 견해가 정설화 되었다. 게다가 통시적인 연구(張旺熹 2001, 張伯江 2000)에서도 甲류가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할 때, 把字句에서 ‘이동(位移)’개념이 把字句의 핵심 개념임을 알 수 있다.⁷⁾

먼저 甲류 把字句의 구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把字句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給與류(把+DO+V+給+IO), 放置류(把+O+V+在/到……+Pw), 當作류(把+O1+V+成/爲/作……+O2) 把字句가 속한다. 把-NP의 객관적 이동은 주어에 의해 이루어지며, 화자는 그 사건을 단순히 주사할 뿐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⁸⁾

<그림 3-1> 甲류 把字句(조경환 2008:37)⁹⁾



7) 다시 말해 甲류의 기본 의미는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다”라든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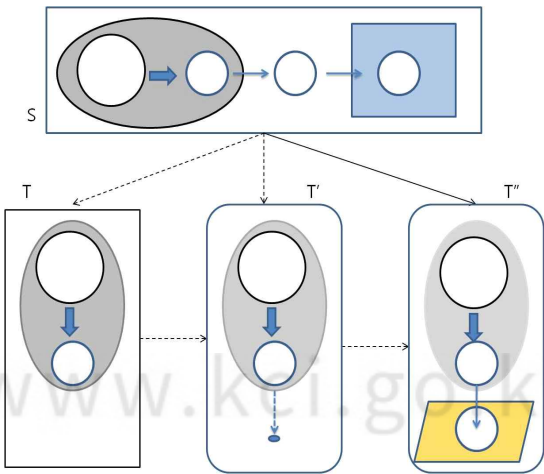
8) 그림<3-1>의 把字句는 경로 도식(path schema)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조경환(2008:35)을 참조 바람.

9) 이 도식은 원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즉 ‘S+把+O’와 ‘O+V+PP’로 나뉘지만, 본고에서는 구문층위의 把字句를 강조하므로, 이러한 하위 도식은 부득이 생략하였다.

그림 <3-1>에서 큰 원은 주어(일반적으로 施事)이며, 작은 원은 빈어(일반적으로 受事)이다. 굵은 화살표는 동사이며, 작은 화살표는 이동 경로이다. 굵은 선의 타원형은 '把'자가 나타내는 주어의 영향권으로 '잡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상당히 남아있다. 오른쪽의 사각형은 끝점으로 장소나 사람을 나타낸다. 설명의 편의상 시간축과 화자는 생략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甲류 把字句는 把字句의 초기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다. 영어의 'send'류와 유사하게 甲류 把字句에 쓰이는 동사 자체에 이미 '이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구문에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甲류 把字句가 확립되고 관습화된 후, 把字句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즉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이동으로부터 주관적이고 가상적인 이동으로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다시 말해 把字句가 동보구조와 결합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는 한 순간에 확립된 것이 아니라, 변화 중간에 동사 뒤에 기타성분이 없거나 또는 결과 요소가 확실치 않은 성분이 출현하는 등 과도기적인 과정의 把字句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구문 파생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2> 甲류로부터 乙류로의 파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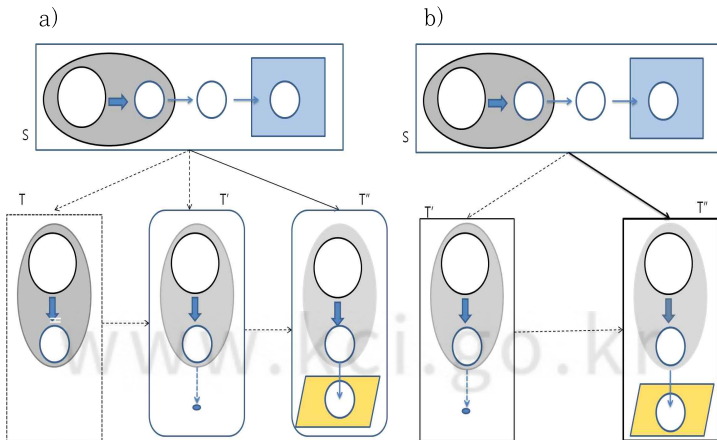


甲류 把字句는 근원(Source: S로 표기)으로 작용하며, 아래 把字句들은 목표(Target: T로 표기)로 작용한다. T는 “不把庭前竹馬騎(《敦煌變文》)”와 같이 동사가 단독으로 쓰인 丙류 把字句로 끝점이 없으며, T'와 T''는 모두 乙류 把字句들이다. T'는 동사 중첩이나 동량사가 쓰인 경우로, 이때의 끝점은 공간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경계 지어졌으며, 이에 작은 점으로 표시하였다. T''는 결과보어등과 같이 명확한 결과요소가 더해진 把字句로 이러한 결과요소는 색 깔이 있는 마름모로서 표시된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甲류 把字句는 바로 乙류(T') 把字句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丙류 把字句(T)를 통해서 접근이 된다. T와 T', T''사이의 점선의 화살표는 이러한 확장 과정을 나타낸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새로운 용법들은 아직 관습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乙류 把字句가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은 丙류 把字句를 고려하지 않고도 바로 乙류 把字句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즉 乙류 把字句는 宋대 이후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관습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3> 乙류 把字句의 관습화



결국 丙류 把字句는 관습화되지 못하고 사라졌으며, 당시 사람들은 甲류 把字句로부터 바로 乙류 把字句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같은 乙류 把字句이지만, T'와 T''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동사 중첩이나 동량사가 쓰인 把字句(T')는 명확한 끝점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把字句의 구문의미와 상충하게 된다. 반면 T''는 명확한 결과요소를 포함하여 T'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고착화되었으므로 굵은 선의 상자로 표시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T', T''와 같은 乙류 把字句를 오히려 원형인 甲류 把字句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에 혹자는 乙류 把字句를 把字句의 원형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는데, 비록 乙류 把字句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관습화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乙류 把字句는 甲류 把字句로부터 丙류 把字句를 통하여 확장된 구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통계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표 3-1> 處置式의 사용빈도(吳福祥 1996:435)

	唐五代處置式 (7種文獻)	宋代處置式 (8種文獻)
廣義處置式	126	109
狹義處置式	63	165
致使處置式	23	15
총	212	289

표 <3-1>의 통계 결과를 보면 把字句를 포함한 處置式의 전형적인 유형이 唐代에서 宋代로 넘어옴에 따라 甲류에서 乙류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甲류의 구체적인 공간 끝점이 乙류에서는 추상적인 끝점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把字句, 더 나아가 중국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Goldbeg(1995/2004) 역시 일찍이 구문간의 은유적 확장 연결에 주목한 바 있는데, 그녀는 이동구문과 결과구문간의 관계를

10) 吳福祥(1996)의 이 통계 결과는 把字句뿐만 아니라, 將字句도 고려한 것이다.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9) Pat threw the metal off the table.

Pat이 쇠를 테이블 아래로 던졌다.

(10)a. Pat hammered the metal flat.

Pat이 쇠를 망치로 두들겨 평평하게 만들었다.

b. *Pat hammered the metal flat off the table.

(Goldberg 1995/2004:147)

위의 두 구문간의 유사성은 'fat'이라는 결과구를 'off the table'이라는 전치사와 같은 일종의 위치변화로 해석함으로부터 온다. 이는 예 (10b)와 같이 예 (10a)구문에 목표 전치사구를 더한다면 비문이 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¹¹⁾ Goldberg(1995/2004)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하였다.

(11) 단일경로(UP) 제약:

만약 논항 x가 구체적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 하나의 절 안에서 x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 복수의 경로는 없다. 경로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함의한다: ① x는 주어진 시간 t에 동시에 구별되는 두 위치로 이동된다고 서술될 수는 없다. ② 이때의 동작은 하나의 배경 내에서 이루어진 경로를 따라야 한다.

(Goldberg 1995/2004:149)

단일 경로 제한은 乙류 把字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주관적 이동은 반드시 필수적인 경로 자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Matsumoto 1996:194). 주관적 이동의 경로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포함되거나(예(12)), 부사 또는 후치사구에 의해 표현되는데(예(13c)),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¹²⁾

11) 즉 Goldberg(1995/2004:150)는 상태변화를 아래와 같이 일종의 새로운 위치이동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은유에 해당한다.

이동 → 변화

위치 → 상태

'把字句'에서 결과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보어는 일종의 처소로 처리될 수 있다.

- (12) The road began to {ascend/descend/curve}
 길이 {올라가기/내려가기/휘어지기} 시작했다.
- (13) a. John began to run.
 John이 달리기 시작했다.
- b. *The road began to run.
- c. The road began to run {straight/along the shore}
 길이 {똑바로/해변가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Matsumoto 1996:195)

그럼 <3-2>에서 볼 수 있듯이 把-NP의 객관적 이동에서는 그 경로가 분명하지만, 把-NP의 주관적 이동에서는 경로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경로도식이 수직도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把-NP의 이동 역시 객관적인 경로에서 주관적 이동의 경로가 전환된다고 여기는데, 다시 말해 把-NP의 주관적 이동의 경로는 결과보어 또는 부사 등과의 결합에 의해 표현되며, 이는 단일 경로 제한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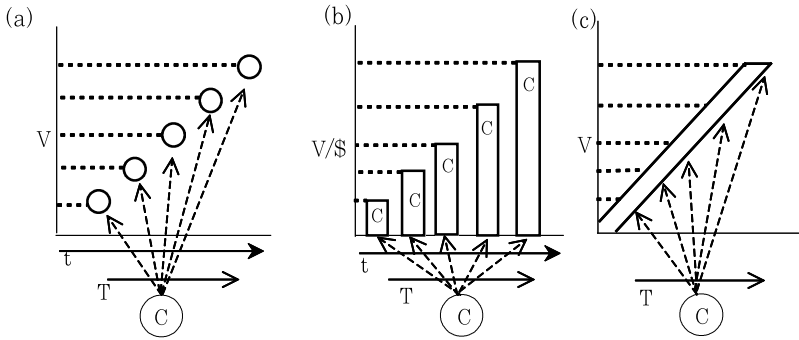
그런데 주관적 이동과 은유적 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해 은유적 이동 역시 객관적 이동의 일종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만 한다(Langacker 2006:25).

- (14) a. The balloon rose quite slowly.
 풍선이 매우 천천히 떠올랐다. [객관적·사실적 이동]
- b. Last year the price of coffee rose steadily.
 작년에 커피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었다. [객관적·은유적 이동]
- c. The trail rises simply near the summit.
 오솔길이 산 정상 근처까지만 뻗어있다. [주관적·가상적 이동]

12) 한국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소년이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b.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다.
 c. 고속도로가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임지룡 1998:7)

<그림 3-4> 객관적 이동·은유적 이동과 주관적 이동 (Langacker 2006:25)



예문 (14)와 위의 그림 <3-4>를 함께 살펴보자. 먼저 (a)의 'rise'는 주어에 의한 실제적·객관적 이동을 나타낸다. 즉 탄도체인 'the balloon'은 시간(t)을 따라 수직축(V)에 대해 연속적으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공간적인 이동을 진행하며 화자는 'the balloon'의 공간적인 이동을 따라 심적으로 주사할 따름이다.

(b)의 'rise'는 커피 가격의 인상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커피 가격(tr)은 수직축을 따르는 그것의 이동에서 여전히 객관적으로 해석된다. 수직축이 가격(\$)이라는 범주와 합쳐서 일어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은유적 이동과 객관적 이동은 유사하다. 즉 은유적 이동의 'rise'와 객관적 이동의 'rise'는 모두 주어에 의해 일어난다.

(c)의 'rise'는 가상적·주관적 이동을 한다. 탄도체는 여전히 수직축을 따라 연속적으로 더 높은 점들을 차지하며 동시에 공간적으로 확장된 물체가 되었다. 화자는 물체의 이러한 공간적 배열을 따라 심적으로 주사한다.

把字句中에서 은유적 이동에 해당하는 구문은 바로 甲류 把字句의 當作류이다. 張旺熹(2001:6)는 이러한 當作류를 '등가(等價)도식'이라 불렀고, 張伯江(2000:34)은 이것을 '물질공간의 자리매김(定位)에서 심리공간의 자리매김(定位)'으로의 투사과정이라고 하며, 모두 放置·給與류의 은유적인 확장 도식으로 보았다. 吳福祥(2003:6)은 통시적으로 當作류가 乙류와 丙류(狹義의 處

置式)와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當作류에서 O1과 V 사이에는 전형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는 특정 동사만이 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³⁾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필자는 이러한 유형을 객관적 이동도식의 파생, 즉 把-NP의 은유적 이동으로 간주하였다.

3.2 遭遇와 致使 把字句

비록 乙류 把字句가 把字句의 대표적인 문형으로 고착화되었지만, 把字句의 발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후 乙류 把字句로부터 遭遇와 致使 把字句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 두 把字句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遭遇 把字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조경환 2008:137). 첫째,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표적인 遭遇 把字句라고 할 수 있는 把個句의 특징이기도 하다.¹⁴⁾

둘째, V가 1價이거나 2價이며, 비자주적이다.

<그림 3-5> 동사와 구문의 관계



13) 따라서 필자는 그림 <4-1>에서 當作류는 乙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4)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她把個丈夫死了, 可是不久又嫁了個丈夫” 또는 “小張把個孩子生在火車上了”와 같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把個句’는 근대 중국어의 ‘把個句’와는 달리 주어도 출현하며, 把-NP도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는 점이다(陶紅印·張伯江 2000:444).

위의 그림 <3-5>는 앞 장에서 보았던 그림 <2-1>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타동으로부터 자동으로 갈수록 동사의 價가 감소하고(3價 → 2價 → 1價), 이동 의미 역시 희미해짐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영어의 'send'·'kick'·'sneeze'와 대응하여 甲류의 '給'·'放', 乙류의 '打', 遭遇/致使의 '氣' 역시 똑같은 價의 감소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동사의 價와 이동의 의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며, 동사의 타동성이 높을수록 구문에서의 이동 의미가 관습적임을 알려준다. 把字句의 경우 의도적인 處置, 즉 甲류나 乙류에서는 주어의 통제력이 강하지만, 점차 주어의 통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화자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동사의 자주성도 감소되어 遭遇와 같은 非處置류가 출현하게 된다.

그런데 표 <3-1>에서 遭遇/致使 把字句는 唐代보다 宋代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吳福祥(1996)과 달리 王力(1980/1997)은 이러한 遭遇 把字句가 元·明 이후 출현한다고 하였으며, 王紅旗(2003) 역시 王力の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宋代에 감소하였던 遭遇와 致使 把字句가 元代에 다시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吳福祥(1996)은 《敦煌變文》에서 “休把貪嗔起戰爭”과 같은 把字句를 致使 把字句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본고에서 말하는 遭遇나 致使把字句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¹⁵⁾ 또한 吳福祥(1996)이 唐代 7종 문헌에서 致使 處置式이 23개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把字句는 5개였으며, 이는 전체에서 겨우 약 2%(5/212)만을 차지할 뿐이다.¹⁶⁾ 더욱이 《祖堂集》이나 《朱子語類輯略》에서도 역시 遭遇/致使 把字句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紅樓夢》에서는 26개의 遭遇/致使 把字句만이 쓰여 전체에서 3%(26/1021)만을 차지할 뿐이다.¹⁷⁾ 필자가 조사한 《許三觀賣血記》에서도 겨우 14개의 致使 把字句는 그 비중은 3%(14/449

15) 吳福祥(1996)은 把-NP가 施事나 當事인 경우를 致使 把字句라고 하였으나, 그가 《敦煌變文》에서 제시한 예들에서 把-NP가 施事인 경우는 없었다.

16) 吳福祥(1996)에 따르면 唐代 7종의 문헌에서 《敦煌變文》만이 5개의 致使 把字句가 존재했을 뿐, 나머지 6종의 문헌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把字句가 발견되지 않았다.

17) 錢學烈(1986:4)의 통계에 근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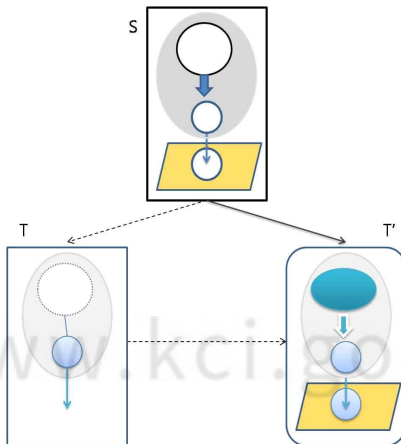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할 때, 확실히 遭遇/致使 把字句는 예나 지금이나 把字句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소소하며, 비주류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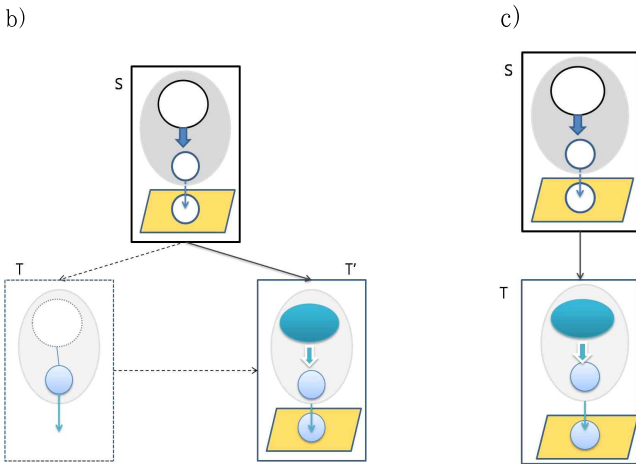
비록 吳福祥(2003)과 같이 遭遇 把字句와 致使 把字句를 동일시한 학자들도 있지만, 필자는 遭遇 把字句와 致使 把字句는 여전히 구분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예를 들면 “她把個丈夫死了”와 같은 遭遇 把字句와 “這件事把她的丈夫氣死了”와 같은 致使 把字句간에는 여전히 미세한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遭遇 把字句에서 ‘她’는 비록 주어자리에 있지만 施事라고는 보기가 힘들며, ‘把’자의 통제 의미 또한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致使 把字句에서는 致事인 ‘這件事’와 ‘她的丈夫’간에 인과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把-NP인 ‘她的丈夫’는 ‘氣死’를 겪는 경험자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遭遇 把字句의 주어는 대개 생략되지만 설령 출현한다 하더라도 施事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반면 致使 把字句의 주어는 사건을 나타내는 致事이며 把-NP가 경험자 역할을 지니게 된다.

遭遇 把字句와 致使 把字句의 파생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 遭遇 把字句와 致使 把字句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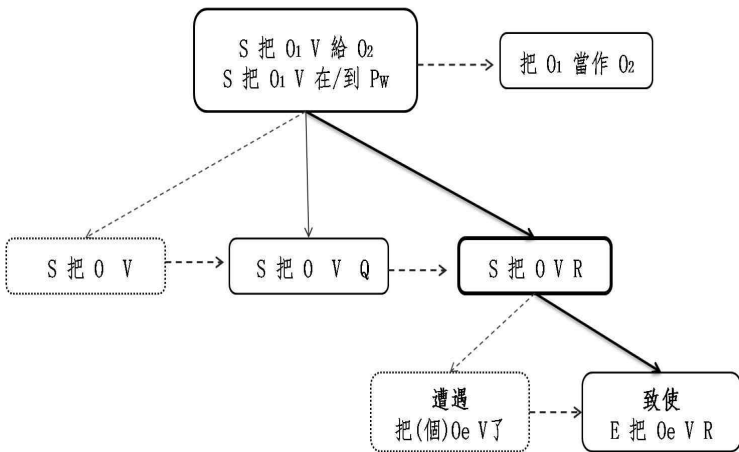
遭遇 把字句의 경우 일반적인 把字句의 자질과 충돌하므로, 소수(把個句)만이 남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遭遇 把字句로부터 파생된 致使 把字句는 遭遇 把字句와 달리 주어가 출현하나 이는 施事가 아닌 致事(cause)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건(event)이다. 따라서 사건은 색깔이 있는 하나의 타원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색깔이 있는 작은 원으로 표시된 把-NP 역시 경험자지만 遭遇 把字句와는 달리 일정한 결과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Langacker(2009:251)는 “어떤 용법이 설립되고 관습화되었을 때에만 한 구문의 특정의미가 출현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구문과 관련된 의미는 구문의 발생과 분리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sneeze’의 경우 자동적 용법이 관습적이지만 이동 용법이 혁신적인 것처럼 致使 把字句에서는 동사의 자동적 용법이 관습적이지만 구문에서는 타동적으로 쓰여 혁신적이게 되며 이는 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용법은 處置라는 把字句의 원형적인 구문 의미를 벗어나 非處置라는 구문 의미를 나타내며, 따라서 處置류 把字句보다 그 수가 현저하게 적다.

4. 결론

把字句의 파생과정의 동기는 주관성의 강화, 즉 주관화이다(조경환 2008). 그러나 그러한 파생과정에서 모든 구문이 把字句로서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많이 사용되어 고착화되고 관습화된 把字句만이 천 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냈을 뿐이다. 이러한 把字句의 파생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4-1> 把字句의 파생 과정



‘Oe’는 경험자 빈어를 의미하며, ‘E’는 사건을 의미한다. ‘Q’는 동량사를 의미하며, ‘R’은 결과보어를 의미하며, 점선은 확대를 나타낸다.¹⁸⁾ 甲류 把字句가 乙류와 丙류의 근원 영역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주관적인 확대 역시 은유적인 확대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은유적인 이동과 주관적인 이동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當作류는 乙류와 직접적인 연

18) 위의 그림 <4-1>에서는 각 형식의 대표적인 문형만을 들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면 遭遇 把字句의 경우 把個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성을 갖지 못한다. 결국 '處置'란 동사의 處置性만이 아닌 구문 층위에서 정의 내려져야만 한다.

< 참고 문헌 >

- 蔣紹愚(2008), <漢語廣義處置式的來源>, 《歷史語言學研究》 1.
- 梁東漢(1959), <論'把'字句>, 《語言學論叢》 2.
- 梅祖麟(1990), <唐宋處置式的來源>, 《中國語文》 3.
- 錢學烈(1986), <試論《紅樓夢》中的把字句>, 《深圳大學學報》 2.
- 石毓智(2006), <處置式的產生和發展>, 《語法化的動因與機制》, 北京大學出版社.
- 陶紅印·張伯江(2005), <無定式把字句近現代漢語的地位問題及其理論意義>, 《漢語語法化研究》, 商務印書館.
- 王力(1943/1984), <處置式>, 《中國語法理論》, 《王力文集》 1, 山東教育出版社.
- 吳福祥(1996), 《敦煌變文語法研究》, 岳麓書社.
- _____(2003), <再論處置式的來源>, 《語言研究》 3.
- 張伯江(2000), <論'把'字句的句式語義>, 《語言研究》 1.
- 張旺熹(2001), <'把'字句的位移圖式>, 《語言教學與研究》 3.
- 임지룡(1998),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특성>, 《담화와 인지》 5.
- 조경환(2008), 《현대중국어 把字句의 객관성·주관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Evans (2007), A Glossary of Cognitive Linguistics, 임지룡·김동환(2010) 옮김,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한국문화사.
- Langacker Ronald(1990), "Subjectification". Concept, image and Symbol, Mouton de Gruyter 나익주(2005) 옮김, 《개념·영상·상징》, 도서출판 박이정.
- _____(2006), "Subjectification, grammaticization, and conceptual archetypes", *Subjectivity*, Mouton De Gruyter.
- _____(2009),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meaning", *New Directions in Cognitive Linguistics*,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Matsumoto, Yo(1996), "Subjective motion and English and Japanese verbs",
Cognitive Linguistics 7.
- Radden Günter(1995), "Motion metaphrized: The case of coming and going",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Mouton De Gruyter.
- Teng, Shouh-hsin(1977), *A Semantic Study of Transitivity Relations in Chinese*,
 Student Book Co, Ltd.

< ABSTRACT >

Ba construction is one of the most popular construction in Chinese. Based on Construction Grammar and Cognitive Grammar,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extension process of Ba construction. As a construction is meaningful, Ba construction also is meaningful and has its own construction meaning. This kind of semantic change reflects on the history of Ba construction.

중심어: Ba construction, motion, subjectification, construction, extens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9.28	2010.10.30	2010.11.5	2010.11.8	2010.11.30